

데스크 시각



김지을
사회부장

#. 흑산의 파시는 조기 어황따라 시작된다. 3월이면 조윙했던 예리항에 고깃배가 몰리기 시작하고 선창가에 늘어선 60여개의 선술집이 하나둘 동면에서 깨어난다.….예리항 부두에 몰리는 어선은 많을 때는 2000척에 달한다. 방파제 안으로 뻗뻗히 들어서면 안에 달은 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사태가 나고 상주인구 2000여명의 예리항 유동인구는 1만명을 넘게 된다. 밤이면 1000척의 배가 불을 밝히고 서 있어 해상에 큰 도시가 생긴듯한 감을 갖게 한다.

바다도, 섬도 이상하다

‘섬·섬사람’(김정호·1991년)이라는 책을 다시 찾아 읽었다. 향토사학자 김정호가 1971년 전남 250여개의 섬을 답사한 기록이다. ‘아침은 보리죽, 점심은 고구마, 저녁은 파래죽’, ‘악방도 병원도 없고 병이 나면 저절로 낫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척박한 섬과 섬 주민 실태를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150여척의 배를 갈아타며 계속해 돌아다니며 접한 기록이다. 50년 전 책인데 그다지 달라진 게 없는 내용도 있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고 도선마저 없는 섬이 전남에만 118개나 된다’는 내용은 50년 간 숫자만 바뀐 듯했다. 여전히 전국 480개의 유인도 중 74개 섬은 아예 여

은펜칼럼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언뜻가에는 매년 오리 새끼들이 태어났다. 노란 솜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어미를 쫓는 물장구 소리가 평화로웠다. 그런데 어느 해, 털빛이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른 하나가 태어났다. 어미와 형제들은 그를 어색하게 바라보았고 이웃 오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안테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는 이렇게 시작한다. 사실 그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 백조의 일원으로 재탄생할 때까지는 그 진실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존재의 의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그리고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겪은 아픔은 다름의 문제 이전에 해석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우화는 자기 성장의 이야기이면서 한편으로는 해석의 오류, 즉 오역(誤譯)에 대해 돌아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역이란 본래 다른 언어를 잘못 옮기는 일을 뜻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 사회 안에도 수많은 오역이 존재한다. 말보다 먼저 판단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하며, 타인의 의도를 내 기준으로 번역하는 것 말이다. 이창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이 오역의 단면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한생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원장

기고



오주익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처장

물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노후 인프라 문제가 겹치면서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수 패턴 변화와 홍수·가뭄 빈도 증가, 노후화된 수자원 시설의 취약성은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안정성을 위협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분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 기후적응 역량강화’와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단지 용수 공급 안정화는 지역 경제와 직결된다. 광양 1단계 공업용도 노후관 개량 사업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관을 단계적으로 바꿔 관로 사고

위기의 ‘섬 살리기’ 정부 의지에 달렸다

객선 항로에서 제외됐고 절반이 넘는 41개 섬이 전남 지역이다.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은 섬은 70여개가 넘는다’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남 24곳 섬 주민들은 연륙교(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놓였음에도 우편물(온라인소핑몰)을 주문할 때 ‘섬 추가 배송비’를 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수준으로 조금 변한 게 전부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나온 내용이다. 바다는 이상하게 바뀌었다. ‘초봄과 늦가을에 갈치가 많이 잡히고 정월부터 5월 중순까지 조기(조기)가 많이 잡혔으며 5월 이후 6~7개월 간 계속 전갱이가 잡혔다’는 흑산 바다의 어장 지도는 50년 전 옛 이야기다. 서해 바다 표층 온도도 25년 전인 2000년 15.43도였지만 2021년엔 16.12도, 지난해에는 17.12도까지 올랐다.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고기들은 다른 바다로 떠났다. 조기 파시는 커녕 특산물인 흥어조차 잡히지 않더니 평생 터전으로 삼았던 섬 주민들이 바다에 남아있을 리 없다. 다른 서남해안 섬도 비슷하다. 18만 5000명이 남았던 섬 인구(2015년)는 25년 만에 15만 5000명선으로 내려앉았다. 자발적 공도(空島·섬을 비움)가 이뤄지는 섬이다. 섬을 찾는 관광객 발길도 줄어들었다. 5년 전 651만 5000명이던 전남 섬 방문객은 지난해 504만 6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섬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고 섬의 미래가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2026년 9월 5일~11월 4일)는 주목할만하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지구촌 최초의 섬 박람회다. 육지와 단절된 섬에 대한 경제·환경·역사·문화적 가

치를 재조명하면서 특유의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이 보존된 전남지역 보물 섬들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게 박람회조직위 구성이다.

위기의 섬을 기회의 섬으로

전 세계인들과 기후 위기 최전선에 놓인 섬의 지속가능한 보전·개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박람회 성공은 섬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 목표를 위한 핵심 시설인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필리핀·일본·베트남·마다가스카르·팔라우·동티모르·세네갈·피지·페루·그리스·프랑스·캐나 등 12개국 13개 도시의 참가가 확정된 상태지만 중점 유치 대상 37개국까지는 아직 미흡하다. 섬박람회 기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섬과 섬을 오가는 킬러콘텐츠로 활용하려면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기술 실증과 비행 시연 등도 운송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불투명한 상태다. 다도해 풍광과 섬 자원을 활용해 섬을 따라 항해하는 연안 크루즈 운항도 불투명하고 박람회 기간 여객선 운임을 반값으로 내려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입장권 판매 목표액(96억원) 달성도 힘들어 수밖에 없다. 전남도의회도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42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정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냈다. 기후 변화를 마주한 위기의 섬을 살려야한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로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서로를 오역하지 않는 법

은 자신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섬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억압이었다. 원장이 원한 천국은 사실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한 천국이었다. 타인의 고통과 욕망을 자신의 관점으로 번역해 버린 순간 선의는 폭력이 되고 만다. 결국 닫힌사회는 언제나 상대를 잘못 번역하는 데서 시작한다. ‘미운 오리 새끼’의 연못과 ‘당신들의 천국’의 섬은 닫힌사회의 두 풍경이다. 한쪽은 다름이 낯설어 맞대하기를 물설어하고 다른 한쪽은 다름을 제 방식으로 고쳐서 감싸려 한다. 전자는 차별의 오역이고 후자는 선의의 오독이다. 어느 경우든 상대의 진짜 언어를 듣고 보려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시작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 역시 오역의 파문 속에서 흔들린다. 환경 문제 앞에서는 산업과 생태의 언어가 충돌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 지원 정책을 특례로 읽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언어와 문화 장벽 속에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같은 말을 두고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른 뜻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오역에서 비롯한다. 상대의 말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면서 뜻을 호도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읽어버린다. 이해 체계나 세계관의 충돌도 각자의 익숙한 문법으로 상대를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다. 서로의 경험과 인식을 고집할 때 소통의 문은 서서히 닫혀간다. 이렇듯 오역을 되풀이하는 공동체는 타인의 언어를

들을 귀를 잃은 사회다. 이를 바로잡는 길은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한다. 뜻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맥락을 함께 읽는 태도, 그것이 열린사회의 언어다. 포퍼가 말한 열린사회는 바로 이런 태도를 개인의 미덕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이성적 자원으로 확장한 사회다. 그는 비판과 토론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했다. 결국 열린사회는 서로의 문법을 배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조정하는 세상이다. 철학자 김용석은 ‘미운 오리 새끼’를 닫힌사회의 우화로 읽었다. 백조의 무리 또한 같은 깃털만을 허락하는 또 다른 닫힌의 세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당신들의 천국’의 원장은 해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해와 공존으로 옮겨간다. 진정한 천국이 그곳 사람들의 삶과 의지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불안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택한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닫기 쉬운 계절이다. 찬바람이 불면 문틈을 막아야겠지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집 안의 공기부터 탁해진다. 바깥이 문을 두드린다면 열어젖히는 것은 이해와 대화다. 뜻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는 순간, 비로소 공기가 통한다. 닫힌 문을 여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사회의 문을 연다. 다른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말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헤아리며 수긍하려는 작은 공감의 움직임이 결국 닫힌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된다.

기후 적응을 향한 영·섬유역의 물길

위험을 줄이고 공급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양 구간 공사는 준공 마무리 단계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내 기업의 생산 차질을 예방하고 투자 신뢰도를 높이는 등 지역 경제 안정화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용수 공급망 안정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전남 남부권과 동화권 광역 상수도 복선화 사업은 단일 관로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1315억원을 투입해 기존 관로 옆에 새로운 관로를 병렬 구축함으로써 관로 사고 시에도 즉시 대체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남 남부권 10여 개 시·군과 동화권 광역 5개 시·군 주민들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누릴 수 있으며, 상수도 공급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물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물 복지 확대도 필요하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도서·내륙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저류댐과 공공관정을 활용한 신규 물·그릇 확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길도는 2021년 사업 완료 이후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해졌으며 소안도와 청산도에서도 지하수 저류댐 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내륙 산간 취약지역의 공공관정 217개소를 정비·개발하고 지하수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물 이용 여건을 개선했다. 앞으로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과 지능형 물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행복 지수를 더욱 높여

社說

SK데이터센터 광주오려면 공공성 확보해야

정부가 SK그룹과 오픈AI가 추진하는 AI데이터센터를 광주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광주를 위한 민심 수습책의 하나로 꺼내 든 카드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로는 ‘AI 중심도시’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다만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추가로 AI 관련 인프라를 준다면 받아들이 용의가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사실이라면 정부의 교육책과 광주시의 고민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SK와 오픈AI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부가 지분 30%를 가진 국가 AI 데이터센터 공모에선 70% 지분을 가진 기업에게 후보지 선택의 전권을 주었는데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민간 데이터센터 장소를 컨트롤 할 수 있을지 미지수

다. 일각에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와 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GPU 26만장 가운데 정부 몫을 활용하면 민간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아무튼 SK-오픈AI 데이터센터를 광주로 오게 하려면 공공성 부여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지역 AI 생태계와 연결하려면 공공 용도의 연산자원(대규모 GPU)을 지역 AI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교육·창업·도록 개방해야 한다. 지역내 AI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민간 데이터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광주와 전남이 AI 인프라를 두고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와 해남을 잇는 서남권 AI 벨트가 ‘갈등의 축’이 아니라 ‘상생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배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랜드마크 된 ACC 10년…과제도 산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25일로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의 핵심 시설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복합문화공간인 ACC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지 않더라도 공원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주는 힐링 효과는 크다. ACC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란 기치에 맞게 그동안 내놓은 2162건의 콘텐츠 중 80%가 창·제작 콘텐츠 일만큼 문화발전소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 생산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있는 작가 양성에도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민과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대규모 공연장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불러 모을 길러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한 점은 ‘다작 속 흉년’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아시아를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에 조성한 취지에 맞게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정신’을 담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한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ACC를 구성하는 5개 시설 가운데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영 주체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옛 전남도청 등 5·18 사적지인데도 복원과 전시를 놓고 오랑가락하면서 지금까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 조만간 복원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운영 주체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어 5개 원이 완전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CC는 광주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시민들의 눈이터가 되어야 한다. 전당 측은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예술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짐이 현실이 되도록 문턱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無等鼓

창작의 방식

예술가가 알고리즘을 다루고 엔지니어가 느낌을 디자인하는 시대.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융합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예술이 기술을 삼키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예술을 밀어내는 것도 아니다. 다만 또 다른 방식의 창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라는 결과물보다 과정과 시스템을 중심에 두는 창작 방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예술 개념 역시 틀을 벗어나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크리에이터 레지던시는 이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다. 센서와 모터, 조명, 데이터, 사운드, 프로그래밍이 창작의 재료가 되고 협업의 범위는 화가나 조각가뿐 아니라 공학자와 음향 디자이너, 무대기술자까지 넓어졌다. ACC 창·제작 스튜디오에서 본 작가들의 프로젝트는 그 흐름을 잘 보여준다. ‘ADHD’는 빛과 움직임을 다루는 기술을 활용해 공간 연출이나 아트 오브젝트를 창작하는 팀이다. 천장 가득 수많은 와이어에 매달린 커다란 구조물이 코드에 따라 흔들리고 빛과 진동에 맞춰 움직인다. 설치미술 같지만 실험 장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대 리허설 같기도 하다. 기술이 형태를 만들고 예술이 리듬을 조율하는, 기술적 조정과 미적 판단이 한 동선 안에서 이뤄지는 풍경이었다.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 만난 아바 작가의 작업도 비슷한 결을 지닌다. 조명과 센서 장비가 보는 이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빛을 생성한다. 아바 작가는 움직임과 장치를 연결해 인간의 감각과 움직임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작가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표현의 범위를 넓히

는 창작 방식을 실험하고 있었다. ACC가 보여준 창작의 방향은 단순히 예술이 기술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다. 기술이 감각을 만들고 예술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장르의 구분보다는 경험 설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술과 기술을 나누는 기준이 흐려진 요즘, 창작은 그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를 얻는다. 창작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이보람 예향부 부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월간)		제작국장 柳濟寬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사업국	220-0541
정기부	220-0634	기획관리국	227-9600
경매부	220-0648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제2사회부	220-068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